11 제20293호

제20293호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도시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민선 6기 후반기 새 설계

정 현 복 광양시장

"민선 6기 후반기에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도시브랜드를 높여내겠습니다"

민선 6기 취임 후 국내외 경기악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광양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은 민선 6기 후반기설계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시장의 답변은 대부분의 타 자치단체장들이 기업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목표로 내놓 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하게 다가왔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민선 6기 전반기) 2년이 란 짧은 시간동안 대규모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 출, 도립미술관, 예술고등학교 유치 등 광양시민 과 함께 다양한 성과를 냈다"면서 "하지만 광양 이 전국 최고의 살기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선 젊 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도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도시는 결국 고품질의 사회복지 시스템과 기반시설, 양질의 일 자리 등 다양한 여건이 갖춰져야만 가능하다"면 출산장려비 도내 최고 지원 추진

신소재 등 미래 먹을거리 산업 유치

교육 인프라 다지고 일자리 창출 총력

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광양시'라는 이미 지 확립과 함께 이를 도시브랜드화해 젊은이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광양시를 만들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시장은 이를 위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 ▲아이가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 은 도시 ▲미래 희망이 있는 도시를 3대 중점 전략 으로 정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해 간다는 계획이 다.

정 시장은 이미 부서간 협업을 통해 124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임신과 난임부부 지원을 강 화하고 출산장려비도 전남도내 최고 수준으로 높 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 시장은 또 광양시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게 될 '보육재단' 설립도 광양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하고, 평균 연령 '37.8 세'의 젊은 도시인 광양의 도시적 특성을 각종 정



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 경쟁력 강화도 정 시장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주요 역점사업은

- -광양시 산하 보육재단 설립
- -명당·세풍산단 등 도시인프라 구축·활성화
- -체험·체류형 힐링 관광단지 조성 -기능성 화학소재 등 신동력 사업 유치
-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구축

정 시장은 "교육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정책을 체계 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빠져나가는 도시가 아닌 외지에서 몰려드는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민선 6기 후반기동안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자양분이 될 투자유치 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민선 6기 전반기 2년동안 94개 기업, 2 조8539억원 투자유치, 7947개 일자리 창출을 통 해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 상하기도 했다.

정 시장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명당산단과

세풍산단, 황금산단, 목성지구, 와우지구, 광영의 암지구, 성황도이지구, LF아울렛 등 도시 인프라 를 신속히 구축하고, '투자유치→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한다 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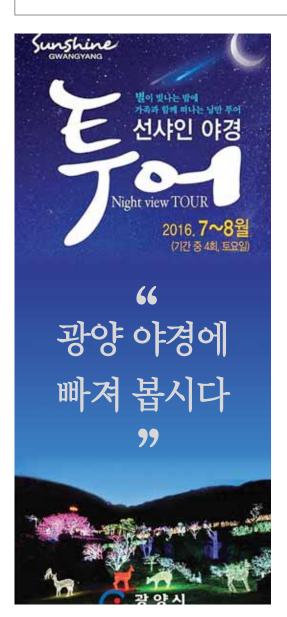
정 시장은 특히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과 부가가치가 높은 신소재 사업 등 미래 먹을거 리가 될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유치하는 데도 모든 힘을 쏟기로 했다.

정 시장은 이와 함께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을 담아 백운산권, 섬진강권, 구봉산권을 3개 축으로 하는 '체험·체류형 힐링 관광단지'를 조성 하고 문화와 예술, 관광 분야를 도시 성장의 한 축 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 시장은 "광양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미래에 희망이 있는, 젊고 역동적인 도시"라면서 "시민의 참여와 협력 속에 1000여 공직자와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미래 먹을거리 산업 창출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시장은 또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자주 만나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소통 현장행정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가 '선샤인 야경투어' 관광상품을 준비해 오는 23일, 30일, 8월 13일, 8월 20일 등 4회 시범 운영한다.

이번 '선샤인 야경투어'는 화려한 광양만의 야경과 느랭이골 자연리조트의 아름다운 불빛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상품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1회에 35명씩 사전 예약 접수를 받아 운영하며, 이용요금은 어른 5000원, 어린이 4000원이다.

투어 코스는 중마시외버스터미널 옆 광양시 관광안내소에서 오후 6시에 출발해 느랭이골 자연리조트, 이순신대교 홍보관, 구봉산전망대

23일부터 '선샤인 야경투어' 다음달까지 4차례 시범운영

를 거쳐 밤 10시께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을 마지막으로 투어가 끝난다.

또 해설사의 문화관광 해설과 돌발 퀴즈 및 이벤트, SNS 미션과 광팡 선물 등의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멋진 야경과 재미가 함께하는 시 간을 보낼 수 있다.

김문수 광양시 문화관광과장은 "야경투어 시범 운영으로 관광 상품 만족도를 조사하고 부 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경투어 사전예 약은 각 투어 하루전날까지 광양시 문화관광과 (061-797-3714)로 하면 된다.

/광양=김경원기자 kkw@kwangju.co.kr

광양 LF아울렛 내년초 개장 가능 市, 토지소유자 상대 행정소송 승소

광양LF프리미엄패션아울렛(이하 LF아울렛) 개 장이 내년 초 가능하게 됐다.

광양시는 21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에서 진행된 LF아울렛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공사가 중단된 지 8개월 만에 공사 재개가 곧바로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순천상인과 일부토지소유자들은 지난 해 3월 18 일 광양시를 상대로 LF아울렛공사에 따른 사업시 행자지정처분, 실시설계승인처분, 토지수용처분을 각각 취소해 달라며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 기했으며, 같은 해 11월 2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지금까지 8개월간 공사가 중지됐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LF아울렛건설 지원TF'를 구성해 관련 분야 전문 직원을 배치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승소에 따라 광양시민이 원하는 문화쇼핑 시설로, 아울렛이 개장되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 활용은 물론 여 수·순천시의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면서 "아울렛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해 개장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LF프리미엄팻션아울렛'은 광양시 덕 례지구계획구역 내 대지면적 7만8000㎡에 1000억 원을 투자해 건축면적 3만9000㎡, 연면적9만3000㎡의 규모로 건립되며, 신규 일자리만 1200여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 초등생 대상 여름방학 수영특강반 운영



광양지역 초등학생들이 광양수영장에서 물 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광양수영장에서 관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수영특강반' 을 운영한다.

이번 수영특강반은 오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230여명, 8개반을 구성하며, 평일에만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광양수영장 안내데스크(061-797-3800)에서 선착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1인 기준 4만원이다.

강습의 내용은 물에 대한 적응훈련부터 수영장 에티켓, 안전교육, 자유형 영법교육 등 이론과 실 기를 병행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특강반 학생들은 강습기간 동안 토요일, 일요 일에도 별도 입장료 없이 광양수영장에서 자유롭

게 수영을 즐길 수 있다.

강희원 광양시 체육시설운영팀장은 "이번 여름방학 수영특강으로 기초 체력증진과 예측하지 못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과 타인의 생 명을 구할 수 있는 대처 능력도 기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7월 개장한 광양수영장은 현재까지 매년 초등생 대상 방학특강 및 체험학습을 통해 수영능력과 수상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등을 교육하고 있다. 지난해는 30개 초등학교 3600명이, 올해는 현재까지 9개 초등학교 2300여 명이 학기별 수영 체험학습에 참가했다.

/광양=김경원기자 kkw@kwangju.co.kr

